



6면

일자리·먹거리 융합개발협력 추진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음 3월 11일) 제27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전북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조기 건설해야”

##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복합물류 수송체계 구축에 필요”... 기재부에 예타통과 요청 농식품부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국비 반영 건의

전북도가 21일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연일 국회와 중앙부처를 넘나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을 방문하며, 전북도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환무진으로 움직였다.

전북도는 첫 발걸음을 기획재정부를 방문 새만금항에서 대안역까지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지난 2016년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새만금신항에서 옥구신호소까지 29.5km를 신설하고 기존의 옥구신호소에서 대안역까지의 군장산단선(18.1km)을 연결하는 47.6km 구간의 화물·여객 병용 전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신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을 배후 산업단지에서 원활히 공급할 수 있으며, 기존의 호남선·전라선·장항선 등과 연결해 전국으로의 물류·여객 수송망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새만금 지역의 기업 유치 촉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구축을 새만금신항만, 새만금 공항과 함께 복합물류 수송체계(트라

이포트)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꼽아 왔다.

지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후 용역이 올해 3월에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용역수행 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변경된 새만금 MP 등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이를 연기했다.

도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추진 중인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건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전 국민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식품 제조·전시·체험·교육·쇼핑·관광 등 복합적인 시설구축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익산을 아시아의 식품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21대 총선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의 전시·체험 및 쇼핑·관광을 함께하는 식품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힘을 보탠 바 있다.

이에 주안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고, 올해 푸드파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 조만간 발



‘보물 승격 예고’ 무주 한풍루

전북 무주군 무주를 당산리에 지리한 누각 한풍루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된다. 무주군은 문화재청의 오는 22일부터 30일간의 공고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보물승격이 최종 결정된다고 21일 밝혔다.

호남삼천(무주 한풍루, 남원 광한루, 전주 한벽당) 중 으뜸으로 꼽혀온 무주 한풍루는 오랜 역사성과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관아누정이라는 희소성, 목재의 조각수법과 입면의 비례 등 예술·특이성이 보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날 농식품부에 푸드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 용역 조기발주와 함께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내년 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17억원을 반영을 요청했다. 교육부를 방문해서는 최근 폐교한

서해대학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도내 대학으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뒤이어 방문한 산림청에서는 무궁화 관련 연구·재배기술·전시·보급·산업화 등의 기능을 집적화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완주지역에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호남 최대규모 집수시설이 확인되고, 역사성이 입증된 고대 문화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장수 참령 산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유호성 기자

이 의원은 2015년 12월에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환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유호성 기자

# 코·목에 광에너지 쏘아 코로나19 잡는다

## 전북대 정환정 교수팀 ‘근접 광에너지 치료기’ 개발, 특허 출원

코로나19 감염자의 코와 목에 광에너지를 쏘어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대학교 정환정 교수팀(해의학 교실)이 근접 광에너지 집적(集積) 조사기술을 이용한 근접광 치료기를 개발하고 원천기술 및 적용기술에 대한 국내 및 국제특허를 출원, 제품화과정을 마치고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와 결별을 의미하는 바이(Bye-Vi)로 명명된 이 기기는

특정 파장대의 광에너지를 확진자의 코와 목에 직접 조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거나 극도로 억제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전북대 인공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충북대 이상명 교수팀과 지난해 여름부터 함께 진행한 연구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세포에 30분 2회 조사하면 숙주세포에는 무해하고 감염된 바이러스는 80% 이상이 사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작용이 없어 횡수를 늘리면 치료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진자의 코와 입을 통해 침투한 뒤 인후부에서 증식이 일어나고 이 중 일부가 폐로 들어가서 폐렴 등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비강, 구강, 인후부의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식이 일어나고 이 중 일부가 폐로 들어가서 폐렴 등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비강, 구강, 인후부의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 교수팀은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완성해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러스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 등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바이 바이(Bye-Vi)가 임상시험에 진입해 확진자들에게 적용되면,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의 음성전환, 경증 및 중증증의 환자의 치료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정 교수팀은 중증 환자에 적용할 제품도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역사고도 백제왕도 익산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다이로움 익산시

이화안 생태습지 (#이화안 생태습지)  
왕궁리 유적 (#왕궁리 유적)  
고소라 (#고소라)  
용포캠핑장 (#용포캠핑장)